

－한꿈이카드 추진협의회－

# 심 의 안 건

- 10월 1일부터 한꿈이카드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
- 시의회 임시회 일정 등을 고려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개별 서면심의를 통해 부여된 안건을 심의·결정하고자 함

대 전 광 역 시

# 목 차

I. 한꿈이카드 도입 진행상황	2
II. 한꿈이카드 향후 진행계획	3
III. 한꿈이카드 추진협약회의의 안건	
① 한꿈이카드 본격 시행시기 등 결정	5
② 승차권 발행기간 및 요금할인액 결정	6
③ 시내버스 환승요금 및 시간범위 결정	8
④ 시스템 유지보수 주체 및 수수료율 결정	9
⑤ 교통요금 후불제 적용시기 결정	10
⑥ 카드 예치금제도 폐지 및 발급수수료 징수	11
⑦ 한꿈이카드 사고시 책임소재 결정	15
⑧ 마을버스 한꿈이카드 도입시기 결정	17
참고 ① 추진협의회 위원 명단	20
② 한꿈이카드 운영협약서	21

# I . 한꿈이카드 도입 진행상황

## 《사 업 개 요》

- 추진주체 : 한꿈이카드 추진협의회 / 시, 버스·택시조합, 시민단체 등 대표로 구성
- 카드종류 : 한꿈이 교통카드, 한꿈이 신용카드 2종류
  - 한꿈이 교통카드 : 전자화폐겸용 교통카드 ⇒ **선불형 카드**
  - 한꿈이 신용카드 : 한꿈이 교통카드+신용카드기능 추가 ⇒ **선.후불 겸용 카드**
- 사용범위 : 시내버스 및 일반상거래 / 향후 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으로 확대
- 소요사업비 : 8,094백만원 / 전액 민자(하나은행 부담)

- 시(市)와 하나은행간 한꿈이카드 추진협정 체결('01.10)
  - 시는 기본정책 결정, 은행은 시스템구축비용 부담 및 관리·운영
- 한꿈이 카드 운영협약 체결('01.12)/ 시+운송주체+하나은행
  - 참여주체들간 한꿈이 카드 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협약
- 한꿈이카드 추진협의회 개최('02. 1)
  - 최초 적용할 전자화폐는 시(市)가 선정, 시내버스 시스템은 버스조합이 선정, 주정산 및 카드발급 시스템은 하나은행이 구축결정
- 교통카드에 처음 도입할 전자화폐 선정('02. 4, 공모) / Visa Cash
- 시내버스 시스템 구축업체 선정('02. 9, 버스조합과 은행주관) / KEBT
- 교통카드 실물 시연회 개최('02.12) / 참여주체 및 기관·단체장 참석
- 교통카드 약식 테스트 진행('03.3) / 하나은행 및 시스템구축 업체
  - 카드발급 및 충전, 정산처리 과정 등 약식 테스트 / 정상처리 확인
- 버스업계와 하나은행간 이견 조정('03. 2~6월), 사업재개('03. 7)

## Ⅱ. 앞으로 진행계획

### ① 시내버스 시스템 구축 완료 / 7. 10~8. 31

- 대상 및 업체 : 시내버스 14개 업체 938대, KEBT(서울 소재)
- 작업방법 : 2단계로 구분, 단계별로 버스업체 순회 작업
  - 1단계 단말기 설치를 위한 사전작업 / 안테나 등 28종 부품설치
  - 2단계 단말기 설치 및 오디오부 케이블 등 연결, 최종점검
- 그간 진행 : 13개 업체 시스템 구축 /1개 업체 구축 거부중

### ② 시범서비스 실시, 문제점 보완 / 9. 1 ~ 9. 30(1개월)

홍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시범서비스 1주일 전부터 시범서비스 안내 홍보</li><li>· 신문.방송, 버스내 전광판, 하나은행 영업점 등</li></ul>
시범서비스 카드발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학생.시민중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이 가능한 자를 대상</li><li>· 하나은행에서 5,000원을 선충전한 교통카드 3,000매를 실명으로 무료 발급 / 한정 발급으로 인한 민원 예방 고려</li></ul>

### ③ 한꿈이카드 본격 서비스 개시 / 10. 1부터

홍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9월 중순부터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본격서비스 및 카드발급 안내</li><li>· 홈페이지 게재(시, 하나은행, 버스조합), 지역 언론(신문.방송), 버스내 전광판, 시.구청 소식지 등</li></ul>
본격서비스 카드발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9월중순부터 대전.충남 소재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발급</li><li>· 발급 종류 : 한꿈이 교통카드, 한꿈이 신용카드 2종류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※한꿈이 신용카드 교통요금 지불은 우선 선불(전자화폐)방식만 허용</li></ul></li><li>· 발급 매수 : 5만매 정도 예상(2003년도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※ 학생들은 하나은행 직원이 학교를 방문하여 일괄 발급</li></ul></li></ul>

#### ④ 한꿈이카드 충전소 확보 / 7월부터 ~ 지속

- 하나은행 지점 57개소 및 자동화코너 CD/ATM기 400여대
- 인터넷 활용 충전 / 스마트카드 리더기 2만대 보급예정
  - 도서관 등 공공장소, 학교 전산실, PC방, 개인용 컴퓨터 등에 스마트카드 리더기를 부착, 리더기와 인터넷을 연결하여 충전
- 기존 승차권 판매소(박스형, 슈퍼 등) 400여 개소
  - ※ 박스형 판매소(43개소)는 충전수수료 지급 문제로 하나은행(비자캐시)측과 협상중
    - 충전 수수료는 충전금액의 0.5% 지급계획(충남.충북 각 0.5% 지급)

#### ⑤ 한꿈이카드 Opening 행사

- 일시/장소 : 2003. 10. 1(수) 11:00 ~ 12:00/시청앞 환승정류장
- 내 용 : 테이프 커팅, 탑승시연, 오찬 등
- 참석대상 : 시민(학생, 주부, 노인회장 등), 기관·단체장 등 50여명
- 행사주관 : 시 + 버스조합 + 하나은행

#### 《한꿈이카드 시행시 기대효과》

- 시민들은, 승차권 구입 및 잔돈소지 불편해소, 요금할인 혜택 등
- 운송업체는, 승차권 제작·판매비 및 수입금 계산·정산에 따른 인력·시간·경비 절감, 수익금의 투명성 확보로 노사갈등 해소 등 경영합리화 도모
- 市로서는, 대중교통이용이 촉진(대중교통 접근성 향상)되어 교통혼잡 비용 절감 및 카드이용 자료 수집으로 요금결정 등 각종 교통정책 기초자료 확보
- 국가적으로는, 경화발행비용 절감, 신용정보화 사회 실현 등

### Ⅲ. 추진협의회 심의 안건

#### **안건 1**   **한꿈이카드 본격 시행시기 등 결정**

##### ☐ **그간 진행상황 및 앞으로 계획**

- 한꿈이카드는 '01.12월 대전광역시와 시내버스.택시.지하철 등 운수 업계, 하나은행간의 “한꿈이카드 운영협약” 체결을 통해 본격 진행
- 진행과정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관련주체간의 이견발생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된 점이 없지 않았으나
- 관련주체들의 양보로 지난 7.10부터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여 8.31까지 완료하고 9월 시험운영을 거쳐,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임.
- 다만, 현재까지 14개 버스업체중 1개업체(경익운수)가 카드 수수료율(2.4%) 인하 등을 요구하며 시스템 구축을 거부중임.
- 이는 지난해 12월 한꿈이카드 시스템 시연회 이후, 버스조합과 하나은행 간에 수수료율 문제, 후불제 조기 도입 등에 관한 이견이 발생,
- 5개월여의 진통 끝에 조정안을 도출, 지난 6월 버스조합 총회에서 조정안을 받아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으나 이에 승복하지 않는 상태임.

##### ☐ **심의 의결안**

- (1) 한꿈이카드는 9월 시험운영을 거쳐, 2003.10.1부터 본격 시행
- (2) 다만, 버스조합에서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한 사항임에도 이에 불복하고 시스템 구축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행을 유보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차원에서 참여업체만 우선 시행
- (3) 아울러, 교통카드 도입.시행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해당 불참업체에 있는 것으로 함

## 안전 2

# 한꿈이카드 시행시 승차권 발행.판매.병행 사용 기간 및 시내버스요금 할인금액 결정

### □ 관련근거 : 한꿈이카드 운영협약서 제13조제1항

- 한꿈이카드 제도의 전면 시행과 더불어 시내버스의 승차권 발행을 중단하고 일정기간 동안에는 기 발행된 승차권을 병행 사용하되
- 한꿈이 교통카드 할인요금은 기존 승차권 요금방식을 적용한다.

### □ 심의 의결안

#### (1) 승차권 발행.판매.병행 사용기간 결정에 대하여

- 버스조합에서는 한꿈이카드 본격 시행일부터 3개월('03.12.31까지) 간만 승차권을 발행.판매하고 / 한꿈이 카드 발급기간 고려
- 버스 이용자들에게는 보유한 승차권이 소진될 때까지 카드와 승차권의 병행사용 및 현금 승차도 가능하도록 허용  
※승차권 및 현금 회수함은 존치
- 승차권 판매상들에게는 교통카드 본격 시행일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승차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승차권이 소진될 때까지 판매 허용

#### (2) 교통카드 사용시 시내버스요금 할인금액 결정에 대하여는

- 한꿈이 교통카드 본격 시행일부터 시내버스에 교통카드 사용시 승차권 할인금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할인

## □ 참 고 자 료

### 《승차권 발행 .판매 실태》

- 버스조합이 일정기간(1~2개월 정도)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승차권을 사전에 인쇄(발행)하여 확보
- 승차권 판매상이 요구시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판매
  - 판매수수료(매당) : 도시형 일반권 1.85%, 좌석 및 학생권 1.0%
- 버스업체와 조합간에 1~2일 주기로 승차권 회수분 정산, 업체에 대금 지급

### 《현재 승차권 할인금액》

(단위 : 원)

구 분	도 시 형			좌 석			비 고
	현 금	승차권	할인액	현 금	승차권	할인액	
초 등 생	250	200	50	1,300	650	650	
중.고생	500	450	50	1,300	1,000	300	
일 반	700	650	50	1,300	1,250	50	

※ 현재 학생 승차권 할인금액은 재정지원으로 보전

- 지원기준 : 일반인 승차권액 - 학생 승차권액 /국비, 시비 각 50%
- '01년 2,066백만원, '02년 2,626백만원, '03년은 3,000백만원(예상)



### **안전 3** 버스간 환승시 할인요금 및 시간범위 결정

#### ☐ 관련근거 : 한꿈이카드 운영협약서 제13조제2항

- 추진협의회에서는 카드의 확대보급과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내버스 운행노선의 개편 및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
- 이에 따른 카드 이용시 할인요금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.

#### ☐ 심의 의결안

(1) 지정된 외곽순환버스와 도시형버스간 80분 이내 환승시 무료

- ① 순환버스 14번 + 도시형버스 110번
- ② 순환버스 21 ~ 26번, 41 ~ 47번 + 도시형버스 220, 841번
- ③ 순환버스 30 ~ 32번 + 도시형버스 310, 510, 510-1, 513, 813번
- ④ 순환버스 50, 51번 + 도시형버스 510, 510-1, 513번
- ⑤ 순환버스 60 ~ 64번 + 도시형버스 640, 828, 829번
- ⑥ 순환버스 70, 71번 + 도시형버스 720, 724번
- ⑦ 순환버스 74번 + 도시형버스 726, 851번

(2) 시청앞 환승정류장 경유노선(5개)간 60분 이내 환승시 무료

- 도시형버스 185번 + 215번 + 315번 + 735번 + 750번

(3) 노선개편시 단축노선간 60분 이내 환승시 무료

- ① 도시형버스 111번 + 111-1번      ② 도시형버스 111-1번 + 113번
- ③ 도시형버스 112번 + 116번      ④ 도시형버스 113번 + 116번
- ⑤ 도시형버스 720번 + 724번      ⑥ 도시형버스 315번 + 750번

#### ☐ 참고자료 / 타도시 요금할인 사례

- 서울 : 시내버스 전노선간 60분 이내 환승시 50원 할인
- 안양 : 1개노선과 타노선간 60분 이내 환승시 무료
- 김해 : 시내버스 전노선간 60분내 환승시 무료

## 안건 4 시스템 유지보수 주체 및 수수료를 결정

### □ 관련근거 : 한꿈이카드 운영협약서 제7조제4항

-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과 각종 수수료율(요금등의 정산, 카드의 발행, 데이터의 수집, 시스템의 유지보수 수수료 요율 등을 포함)의 부담주체와 집행방법을 추진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한다.

### □ 심의 의결안

- (1) 시스템 유지보수는 교통카드 시행후 5년간 하나은행이 책임관리
- (2) 수수료율은 그간 협의된 내용대로 선.후불 공히 2.4%로 결정
  - 단, 한꿈이카드와 동일한 조건으로 구축되는 국내 타도시의 카드 수수료율이 더 낮게 적용될 경우에는 관련주체간에 협의하여 조정

### □ 참고자료 / 그간 협의사항

- 시스템 유지보수는, 교통카드 시행후 최초 5년간을 하나은행이 책임지고, 그 이후에는 관련주체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
- 수수료율은, 교통카드로 지불된 시내버스 이용금액의 2.4%로 하되,
  - 한꿈이카드와 동일한 조건으로 구축되는 국내 타시도의 수수료율이 더 낮게 적용될 경우는 관련주체간에 상호 협의하여 조정

수수료

요율

: 하나은행이 대행하게 되는 요금정산, 시스템 유지보수 등과 관련되어 버스업계가 하나은행에 지급하는 “수수료 요율”

- 구성 : 충전, 전자화폐, 카드회원관리, 데이터수집, 시스템유지관리 등 비용
- 사례 : 부산·울산·경북·충남·충북 2.4%, 경남·원주 2.5%

## **안전 5** 시내버스 교통요금 후불제 적용 시기 결정

### **□ 그간 협의사항**

- 당초에는, 교통카드 시스템은 선·후불방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되, 우선 선불(전자화폐)방식을 적용하고 후불방식은 일정 기간 유예후 적용하기로 결정
  - 이에 따라 전자화폐 겸용 교통카드(선불방식) 도입을 전제로 전자화폐사를 공모하여 “비자캐시”를 선정했으며,
  - 전자화폐 유통인프라 구축 등 초기 시설투자 유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고려했기 때문
- 그러나, 버스업계에서 선·후불방식 동시 적용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수용
  - 버스조합과 하나은행간에 2003. 12. 31 이내에 후불방식을 적용하고 후불카드사 선정 또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의

### **□ 심의 의결안**

- (1) 시내버스 교통요금 후불제 적용은 버스조합과 하나은행간에 합의한 2003. 12. 31 이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후불카드사 선정 시스템 성능개선 등의 준비가 완벽히 갖추어진 후에 시행하기로 결정
- (2) 다만, 버스조합과 하나은행 양측이 상기 일정내에 후불제를 도입하지 못하거나, 도입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경우는 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차원에서 대전광역시의 주관하에 후불제 도입을 추진한다.

### **□ 참고자료 / 선.후불제 적용 도시**

- 교통카드 시행 도시 대부분이 선불제를 먼저 도입하여 시행 후 후불제를 도입
- 후불제 적용 도시 : 수도권 지역( 서울, 경기, 인천 ), 대구, 충북
- 선불제 적용 도시 : 부산, 울산, 경남, 경산, 김해, 원주, 춘천

## 안건 6 한꿈이카드 예치금제도 폐지 및 수수료 징수제도 보완

□ 관련근거 : 한꿈이카드 운영협약서 제4조제3항, 제5조제1항3항,

- 하나는행은 한꿈이카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“추진협의회”의 결정에 따라 카드신청인으로부터 예치금을 받을 수 있다(제4조제3항)
- 한꿈이카드 참여주체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정·추가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호 합의, 협약내용을 수정·변경할 수 있다(제15조제1항)

### □ 심의 의결안

#### (1) 한꿈이카드 예치금 제도를 폐지함

##### 《 폐지사유 》

- 예치금제도는 카드발급시 카드신청인으로부터 일정액을 받아 예치해 두었다가 카드사용 중지 등을 사유로 카드를 반납할 경우 예치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로써
- 무기명 카드제도 하에서 반납된 카드를 재사용함으로써 수납되는 예치금으로 카드자재 조달비용을 우선 충당 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, 입법예고('02. 10)중인 전자금융거래법(안)에 의하여 전자화폐는 실명 카드만 발행이 가능하므로 재사용이 불가능함
- 또한, 예치금제도는 카드신청인에게 저항감을 줄 수 있으며, 서울 등 타 시도의 사례를 볼 때 예치금 반환실적이 미미하여 시민에게 실익이 없음
- 카드발행기관에게는 예치금 관리를 위한 전산개발, 수납, 조회, 환불 등 사무처리에 따른 관리비용만 증가시켜 실익이 없는 제도임

- (2) 한꿈이카드 수수료 징수제도를 신설하고, 카드 본격 시행일부터 수수료 면제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한하여 카드발급 수수료를 징수함

### 《 신설 사유 》

- 한꿈이카드는 IC칩 기반의 전자화폐 + 신용카드 + 공인인증서 + 금융IC카드(CD/ATM에서의 현금인출)기능 등을 구현하는 다기능 카드
- 그러나 이러한 다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및 금융 IC카드 발급 유료화 시행등 관련제도의 변경계획 등으로 수수료 징수가 불가피한 실정

#### 관련제도 변경계획

- 정보통신부 주관 공인인증서 유료화 ⇒ '03. 10월부터 시행예정
- 한국은행 주관 금융IC카드 유료화 ⇒ '03.10월 시범, '04.1월 본격시행

- 또한, 시민에 대한 한꿈이카드 남발을 방지하고, 카드발행기관의 카드자재 조달비용(1매당 8,000원)의 부담을 완화하여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함
- 장래에 핸드폰과 결합, 디지털TV, 자동차 등과 연계하는 신기능 추가예정

### 《 수수료 면제조항 운용 》⇒ 카드이용 시민의 부담 최소화

- ① 초·중·고등학생 및 만 18세 이하 미취학 청소년들에게 한꿈이 교통카드를 발급시는 수수료 면제
- 단, 금융실명제법상 실명확인이 어려운 초등생(학생증 등 신분증이 없기 때문)은 부모 등 친권자를 통해 발급하며, 만 18세이하 미취학 청소년들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출하여야만 발급수수료 면제
- ※ 교통카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학생층에 실질적인 혜택부여

- ② 한꿈이 신용카드 발급신청자에게는 수수료 면제
  - ③ 공인인증서 사용 시민들이 한꿈이카드 발급신청시는 수수료 면제
  - ④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65세 이상 노인계층이 한꿈이카드 발급신청시는 수수료 면제(사회복지 차원)
  - ⑤ 이와함께, 금융IC카드 유료화 이후 한꿈이카드에 금융IC카드 기능을 추가시 금융IC카드 수수료 면제
- ⇒ 따라서 한꿈이카드 발급수수료는 한꿈이카드를 신청하는 시민중, 비학생층으로서 신용겸용카드 미발급자, 공인인증서 미발행자 모두에 해당하는 성인만 징수대상이 되는 구조

## □ 참고자료 / 타 시도 사례

- 서울시에서 교통카드 예치금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수수료제도로 전환함
- 부산, 경남, 전북, 전남, 충북 등 전자화폐 형태의 교통카드 발급 시도의 경우 수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음
- 수수료 금액은 단순 교통카드의 경우 2,000원(서울, 대구), 전자화폐 형태의 경우 4,000원 수준임

## 공인인증서, 금융IC카드란?

### □ 공인인증서 란?

- ① 필요성 :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여 인터넷상 본인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정보통신부 주관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여 인터넷상 신분증인 공인인증제도를 시행함
- ② 발 급 : 한꿈이카드 발행기관에서 정보통신부 승인을 받은 공인인증기관(금융결제원, 증권전산, 한국정보인증, 한국전산원, 한국전자인증 등)에 신청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음
- ③ 용 도 :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인터넷상의 신분증으로서 전자정부 민원서류 발급, 은행업무 처리, 신용카드 업무 처리, 주식거래, 세금계산서 발행, 전자입찰 등 사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
- ④ 유료화 관련 : 2003. 10월부터 유료화할 계획인 가운데, 금액은 연간 5,000원 ~ 7,000원 정도로 예상됨

### □ 금융IC카드 란?

- ① 필요성 : 금융감독원에서 기존 M/S카드를 이용한 각종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말까지 현금카드를 IC칩 기반의 카드로 변경하도록 조치함
- ② 발 급 : 한꿈이카드 발행기관에서 신청하여 발급함
- ③ 용 도 : 은행의 자동화기기(CD, ATM기)에서의 현금인출 기능을 부여하며, 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보안성을 강화하였음
- ④ 유료화 : 금액은 2004년부터 카드발급기관의 자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기로 하였으며, 약 4,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

## 안전 7 | 한꿈이카드 전자금융 사고시 책임소재 결정

- 관련근거 : 한꿈이카드 운영협약서 제8조제3항, 전자금융거래법(안) 제9조(재정부에서 '02. 10월 입법예고)

《 한꿈이카드 운영협약서 제8조제3항 》

- 한꿈이카드추진협의회에서는 카드의 요금소실,카드분실 등에 대비하여 복구 및 신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《 전자금융거래법(안) 제9조 》

- ① 금융기관·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장치의 분실·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의한 당해 접근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

접근장치  
의 정의

- ㉠ 전자화폐카드, 신용카드, 현금카드, 직불카드, 기타의 전자식카드  
㉡ 이용자번호 또는 사용자번호  
㉢ ㉠,㉡의 장치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또는 인증서

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화폐카드 등의 분실·도난에 관하여는 이용자와 금융기관·전자금융업자간에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
- ③ 금융기관·전자금융업자는 제2항의 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명기하여야 한다

## □ 심의 의결안

- (1) 한꿈이카드의 위·변조, 해킹,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민의 고의·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액은 카드발행기관이 책임을 지되, 아래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고의·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

- ① 카드이용자가 신상정보 또는 접근장치를 타인에게 노출한 경우
- ② 카드이용자가 타인에게 접근장치의 사용을 위임 또는 허용한 경우
- ③ 카드이용자가 전자적장치 또는 중개결제시스템의 고장 또는 장애를 알았던 경우

(2) 상기 내용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카드이용자가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,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.

(3) 단, 한꿈이카드 전자화폐의 경우, 기 충전한 금액에 대한 책임은 분실·도난 등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카드이용시민이 그 책임을 진다.

- 그 사유는 전자화폐의 구조상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지불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며
- 기 시행중인 모든 전자화폐의 경우에도 약관에 명시되어 카드이용자가 책임을 지고 있고,
- 입법예고중인 전자금융거래법(안)에도 카드이용자와 금융기관간의 약정에 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음

## 안전 8 마을버스에 교통카드 도입시기 및 환승할인요금 결정

### □ 도입 여 건

#### 《 유성구청 》

- 시내버스와 동시에 마을버스에도 교통카드를 도입.시행 요구
  - 마을버스에 교통카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, 마을버스 이용자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으로 민원제기 예상

#### 《 버스업계 》

- 마을버스 한정면허처분에 대하여 유성구청과 쟁송중에 있으므로 도입유보 주장
  - 2000. 10. 31 대전지방법원에 소송 제기, 1·2심 유성구청 승소, 상고심 제기('03. 5. 27) 중
  - ※ 광주 광산구청의 경우 상기와 유사한 사례로 대법원(상고심)에서 승소('02년)

#### 《 마을버스업계 》

- 시내버스와 동시에 마을버스에도 교통카드를 도입.시행 희망
  - 다만, 매년 적자운행으로 수수료(2.4%) 및 무료환승 등으로 인한 수입금 감소가 부담이 된다면 수수료율 인하 적용 요망 / 유성구청으로부터 매년 3억5천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

#### 《 하나은행측 》

- 마을버스의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비용을 확보해야 하나, 시기적으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2004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의견
- 또한, 타 도시의 예와 같이 시내버스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 후 마을버스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
  - 마을버스는 배차.노선.정류장.요금체계 등의 면에서 시내버스와 다른 체계로 운행되므로 시스템 재설계 등에 일정기간 필요 등
- 아울러, 마을버스 업계의 수수료율 인하요구도 시내버스와의 형평성 타 도시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곤란하다는 입장

## 《 기타 무료환승 관련 》

- 기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간 환승시 환승요금에 대한 양 업계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
  - 마을버스 탑승후 시내버스 환승시 및 그 반대시 비용부담 문제

## □ 검토 의견

- 마을버스에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시내버스와의 연계 체계 및 환승기반 형성을 기본으로 고려하기 때문인데,
- 상기 도입여건상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업계간의 쟁송관계 진행 중 등의 사유로 교통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연계체계와 환승기반 형성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,
- 이로 인해, 당장 마을버스에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도 상당기간 동안 각각 개별적인 운영이 불가피해 많은 민원발생과 교통카드 시스템의 구축 실익이 상당히 반감될 것으로 예견되며
- 더욱이, 시내버스 시스템이 안정화 된 후에 마을버스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므로 금년내 마을버스에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.

## □ 심의 의결안

### 《제 1 안》

- 마을버스에 시내버스와 동일한 수수료체계를 적용하여 교통카드를 도입하기로 결정은 하되
- 시스템 구축 및 시행시기는 양 버스업계간 연계체계 및 환승기반(환승요금을 무료로 또는 일부 할인으로 할 것인가 등) 형성 등 도입여건에 대한 관련주체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

## 《제 2 안》

-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간의 연계체계 및 환승기반 형성에 대한 관련 주체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로인한 많은 민원 발생이 예견되더라도
- 우선, 마을버스에 시내버스와 동일한 수수료체계를 적용하여 2004년 중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독립적으로 운행하면서, 관련주체간 연계체계 및 환승기반(환승요금을 무료로 또는 일부 할인으로 할 것인가 등) 형성 등 쟁점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

## □ 참 고 자 료

### ○ 마을버스 운행현황

노선 번호	운 행 계 통		회사명	면허 대수	운행거리	대차 간격	1일이용 인 원	운 행 개시일	비고
	기 점	종 점							
1번	전민동 (청구A)	어은동 (한빛A)	오성여객	7대	왕복39.6km	20분	2,000명	'96.10.16	예비차 1대포함
2번	자운대 (군인A)	진잠 (한아름A)	유성버스	5대	왕복34.6km	20분	2,000명	'99. 5.11	
3번	구죽동 (보덕초교)	유성고 (후문)	유 성 고	5대	왕복31km	20분	2,000명	'00.10. 7	

### ○ 시스템 구축비용 / 하나은행이 부담

시스템명	설치비용(백만원)	수 량	단 가	비 고
계	78			
회사내부시스템	39	3식	13백만원	
차량내 단말기	39	17식	2.3백만원	

## 한꿈이카드추진협의회 명단

소 속	직 위	성 명	비 고
대 전 광 역 시	행 정 부 시 장	구 기 찬	위 원 장
대 전 광 역 시	교 통 국 장	김 기 갑	부위원장
대 전 광 역 시	지하철건설본부장	이 강 규	
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	이 사 장	김 희 동	
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	이 사 장	이 규 태	
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	이 사 장	이 재 식	
충 청 하 나 은 행	대 표	최 성 호	
목 원 대 학 교	교 수	박 은 미	교통정책자문위원
영 화 회 계 법 인	회 계 사	박 원 규	
참여자치시민연대	대 표 의 장	민 명 수	지역 시민단체 대표
전국주부교실대전지부	지 부 장	송 병 희	소비자보호단체 대표
대 전 광 역 시	대 중 교 통 과 장	서 명 길	간 사

# 『한꿈이 카드』 운영협약서

대전광역시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와 대전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,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, 대전광역시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, 대전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운수사업체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와 (주)하나은행(이하 “병”이라 한다)은 「한꿈이 카드」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 (목적)** 본 협약서는 “갑”이 추진하는 「한꿈이 카드」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카드운영체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과 참여주체간의 역할분담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정의)** 「한꿈이 카드」(이하 “카드”라 한다)란 대전광역시 주관 하에 한 장의 카드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시내버스, 택시, 지하철, 주차요금 등 교통요금은 물론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다기능 카드를 말한다.

**제3조 (추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)** ① “카드”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「한꿈이 카드 추진협의회」(이하 “추진협의회”라 한다)를 두며, “병”은 카드운영시스템의 자문역할로 참여하되 의사결정권은 갖지 않는다.

② 카드시스템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실무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「한꿈이 카드 실무협의회」(이하 “실무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③ “추진협의회”와 “실무협의회”의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다.

## 제 2 장 “카드”의 발행 및 기능

**제4조 (“카드”발행)** ①“카드”는 “병”이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“추진협의회” 결정(방식, 수량 등)에 따라 발행하되 “카드”의 교통지불 관련 키(Key)값과 보안 알고리즘(Algorithm)은 카드의 범용화(汎用化)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“갑”이 보유·관리한다.

②“병”은 “카드”의 보급·관리에 책임을 지며 카드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은 “추진협의회”에서 결정한다.

③“병”은 “카드”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“추진협의회”의 결정에 따라 카드신청인으로부터 예치금을 받을 수 있다.

**제5조 (“카드”의 종류 및 유형)** ①“카드”는 “한꿈이 교통카드”와 “한꿈이 신용카드”로 구분한다.

②“한꿈이 교통카드”는 시내버스, 택시, 지하철 및 주차요금 등 교통요금과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선불형 카드를 말한다.

③“한꿈이 신용카드”는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위의 “한꿈이 교통카드”기능에 일반 신용거래 기능을 추가하여 “병”이 소득이 있는 시민에게 발행하는 카드를 말한다.

④“한꿈이 교통카드”의 유형은 일반용, 중·고등학생용, 초등학생용으로 구분하되, 점진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그 유형을 넓혀 나간다.

**제6조 (“카드”의 기능)** ①“카드”에는 대전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카드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문화관광, 의료, 복지, 민원, 공과금, 유통분야 등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기능을 점차 확대하여 나가되 개인정보 보호와 연관되는 분야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

②각 참여주체는 “카드”의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첨단기능을 개발하고, 각 참여주체간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카드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.

③각 참여주체는 “카드”가 충전권을 비롯한 전국으로 호환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, 본 협약에 의한 시스템구축 중에 중앙부처의 표준(안)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“추진협의회”의 결정에 따라 이를 수용해야 하며 비용부담은 제7조에 의한다.

### 제 3 장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

제7조 (“카드” 운영체계 구축) ①“카드”, 시내버스단말기, 정산기,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 관련 시스템의 전반적인 사항은 “갑”의 주관으로 별도의 기술심사를 거쳐 “추진협의회”에서 결정하는 기종에 따라 설치하되 비용은 “병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시내버스 카드 단말기에는 “갑”이 추진하고 있는 버스안내시스템(BIS)과 연계하여 운행기록측정(타코메타) 기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.

③각 운송사업 주체가 교통요금 지불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본 “카드”와 호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“병”은 금융서비스 등의 제공을 통하여 이에 협력할 수 있다.

④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과 각종 수수료율(요금 등의 정산, 카드의 발행, 데이터의 수집, 시스템의 유지보수 수수료 등을 포함)의 부담 주체와 집행방법은 “추진협의회”에서 협의 결정한다.

제8조 (“카드”의 요금보충 시스템 구축) ①“을”은 “카드”의 요금보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현 시내버스 승차권 판매소 등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다수의 “카드” 판매 및 보충소를 설치, 운영하여야 한다.



②“카드”의 요금 보충한도액을 두되 최초시행 당시에는 일반용은 5,000원 이상 500,000원 이하, 학생용은 1,000원 이상 100,000원 이하로 하며 여건변화에 따라 “추진협의회”에서 보충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“추진협의회”에서는 “카드”의 요금소실.카드분실 등에 대비하여 복구 및 신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**제9조 (“카드” 요금보충 시스템의 운영)** ①“을”은 “추진협의회”에서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“카드” 무인 보충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 관리한다.

②“을”이 “카드” 무인보충시스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장소, 버스정류소 등에 무인 보충기를 설치함에 있어 “병”은 시스템통신 연결 등에 적극 협조한다.

③무인 보충기는 카드잔액조회, 금액보충, 이용형태표시 등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하며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.

④“을”은 개인 보충소운영 희망자를 모집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모든 경비는 보충소운영 희망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
⑤보충기의 구매.설치.하자보수 등 제반사항은 “을”과 관련업체 간의 구매계약에 따라 정한다.

**제10조 (“카드”요금 보충수수료)** “카드”요금 보충수수료는 현재의 회수권 판매수수료율을 준용하여 관련 운수업계에서 지불하되 “추진협의회”에서 요금수입 비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**제11조 (보충금액의 배분 및 요금 등의 정산)** ①“병”은 일.월.년 단위로 카드의 보충금액(선수금)을 “추진협의회”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기능별로 배분하고 그 내역을 일정 기간별로 “갑”과 “을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내용을 정기적으로 “추진협의회”에서 승인 받아야 하며, 이를 “추진협의회”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②“병”은 “추진협의회”와 “실무협의회”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산을 위하여 집계된 보유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.

③정산자료는 교통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집계 및 변경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어야 하며, “병”은 정산시스템이 정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.

④시민의 교통 편익증진을 위하여 정산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동 기금의 적립시기와 사용 방법 등은 “추진협의회”에서 결정한다.

**제12조 (정산기관 설립)** ①향후 “카드”의 점진적 발전을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전담하도록 “추진협의회”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동으로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②합작투자법인은 “카드” 발행을 비롯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.

③합작투자법인이 설립되어 본 카드제도가 추진될 경우에도 본 협약의 취지를 유지하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참여주체들 간에 다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**제13조 (요금 적용)** ①“카드” 제도의 전면시행과 더불어 버스의 승차권 발행을 중단하고 일정기간 동안에는 기 발행된 승차권을 병행 사용하되 할인요금은 기존 승차권요금 방식을 적용한다.

②“추진협의회”에서는 “카드”의 확대보급과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“카드” 적용요금의 할인을 조정과 시내버스 운행노선의 개편 및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따른 “카드” 이용시 할인요금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.

## 제 4 장 부 칙

**제14조 (분쟁 및 관할법인)** “카드”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참여주체들은 각 분야별로 역할을 다하여야 하며 본 협약과 관련하여 참여주체들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적인 상관습을 고려하여 참여주체간의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하고, 만일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이에 따르는 소송은 대전광역시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.

제15조 (협약의 변경 및 추가) ①“갑”, “을”, “병”은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호 서면에 의하여 합의로써 협약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
②“갑”, “을”, “병”은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협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각 사안별로 세부적인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.

제16조 (협약 증명) 이 협약의 이행을 증명하기 위하여 6통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01. 12. 29.

“갑” : 대 전 광 역 시 장

“을” : 대 전 광 역 시 지 하 철 건 설 본 부 장

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

대전광역시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

대전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

“병” : ( 주 ) 하 나 은 행 장

# 한꿈이카드 추진협의회 서면심의의결서

□위원 성명 :

□의결 내용 : 원안 의결(            ), 수정의결(            )

□수정 의결시 그 내용

안전번호	안 건 내 용	수 정 의 결 요 구 내 용

2003. . . .

위원 성명 : (서명)